

혈세 연 200억 쓰는 국립광주과학관 '엔터리 운영'

과학 멘토링 강사 무단결강·상습지각 등 파행 운영 시민 분통
기기 고장 많고 과학과 무관한 조잡한 중국 서커스단 공연까지
'동네 놀이터' 전락 지적 속 과학 대중화·인재 육성 취지 무색

호남권 과학기술 대중화와 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립광주과학관이 '동네 놀이터'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인기 체험시설은 과학관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사실상 점령해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학 프로그램은 강사가 '제멋대로 결강'하고 지각을 일삼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또 민간과 위탁 계약 방식으로 운영 중인 문화행사는 과학과는 동떨어진 조잡한 수준의 중국 서커스 공연을 배치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4일 광주시와 국립광주과학관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과학관은 건립비 844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10월 개관돼 7년째 운영 중이다.

올해에만 광주과학관 운영비로 투입된 예산은 국비 141억 2700만원, 지방비(광주시) 43억 9300만원, 자체 수입 15억 5700만원 등 200억원에 이른다.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지만, 호남지역 과학기술 대중화와 지역 과학인재 육성이라는 건립 취지와 다른 엉성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이용객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기기가 많고, 관람객 통제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람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인기 있는 체험기기를 독점하고 차례를 지키지 않는 과학관 주변에 사는 아이들 때문에 줄을 한 참 섰지만, 체험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객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항의했더니, 원래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면서 "아이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 당황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한해 평균 1억원의 외부 강사료를 지급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추가 요금까지 받아 운영되는 초·중·고 대상 과학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참가자들의 불만을 사긴 마찬가지다.

광주과학관은 외부강사를 초청해 10주 과정(매주 토요일 1시간씩)으로 17개의 과학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일부 강사가 상습 지각은 물론 사전 고지도 없이 무단 결강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박모(45·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아들이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참여하는 과학 수업시간에 20여 분이 지나도록 강사가 나타나지 않아 전화를 걸자, 좀 늦는다고 해 기다렸더니 다시 오후 4시부터 하면 안되겠느냐고 하더라"면서 "그런데 오후 4시가 넘어도 나타나지



로봇물고기 보고 싶은데...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국립과학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로봇물고기를 보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3마리였던 로봇물고기는 이날 배터리 문제 등으로 한마리만 헤엄쳐 다녔다.

않아 결국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고, 이날 오후 7시께 "다른 행사를 진행하느라 못 갔다. 미안하다 이해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박씨는 "해당 강사가 거의 매주 10-20분씩은 늦게 오고 수업을 받는 아이들 입에 '선생님 또 지각하네'라는 말이 붙어있을 정도였다"며 "매주 토요일이면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1시간짜리 과학수업을 받는

데 집중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나 지난 주부터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과학관의 엔터리 운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주말 과학문화행사 역시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과학과는 동떨어진 공연을 펼쳐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엔 원통에 올라 모기를 부리는

중국 기예단원이 자루 원통에서 떨어졌고, 심지어 원통이 관람객들에게 날아드는 등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자, 보다 못한 아이들이 "그만해, 그만해"를 수차례 외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올해에도 국립광주과학관은 과학과 무관한 행사 전문업체에 4400여 만원을 주고, 주말 과학 문화행사를 위탁·운영 중이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 하실 분' ...수상한 구인 광고 왜?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 하실 분.' 지난 달 중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극적인 제목의 구인 글이 올라왔다.

방화범을 찾는 A(22)씨의 구인광고였다. 광고 게시 후 수일만에 평소 사채 빚에 시달리던 B(34)씨가 연락을 해왔다.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 화재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며 "내 꽃가게에 불을 내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177cm 80kg의 다부진 체구를 가진 B씨는 "절대 안 잡힐 자신이 있다"며 수락했다.

대구에 사는 B씨는 범행 장소인 광주시 서구 마북동 일대를 위성사진과 거리사진을 통해 철저히 분석한 뒤 범행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 45분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벽히 가린

이별통보 앙심 품고 방화 사주 어린 부모 운영 꽃집에 불질러 모의 사실 3차례 호소했지만 경찰 목살에 결국 화재 피해

채 꽃집에 불을 질렀고,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하지만 B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방화 이후 A씨와 연락을 끊으면서 한푼도 받지 못했고,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됐다.

게다가 B씨가 불을 지른 곳은 A씨의 가게가 아닌 그의 전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꽃집이었다. 알고보니 모 공군부대 소속 하사인 A씨가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부모의 반대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교사한 것이

다. 그런데 방화 피해자들은 예고된 방화였다며, 방화범인 B씨보다 오히려 경찰의 부실한 조동 대응을 탓하고 있다.

방화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께 같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A씨와 연락을 했던 한 시민이 "방화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며 광주서부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시민은 당시 꽃집에 직접 전화까지 해 방화외의 내용을 알려 주기도 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전 여자친구도 경찰서를 3차례 찾아가 방화 모의 사실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결국 실제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사한 A씨를 검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청사 홍보관에서 삭제했다"고 4일 밝혔다.

친일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김응조 초대 전북경찰국장, 3대 한중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근,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그동안 전

북경찰청 홍보관에 친일 인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전북경찰청은 친일잔재 청산의견에 공감하고 친일 국장의 사진을 홍보관 내 '역대 경찰국장' 게시판에서 퇴출시켰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많이 늦었지만, 경찰의 변화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친일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경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정박 중인 어선 불...인명피해 없이 20분만에 진화

4일 낮 12시 50분께 여수시 곡동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배 안에는 선원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펄프차 6대 등 장비 15대와 소방대원 31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흑산도 남서쪽 해역 규모 2.6 지진 발생 기상청 밝혀

4일 오후 5시 19분 20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쪽 106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94도, 동경 124.7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세한 지진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획량 축소·어린 조기 포획 중어선 2척 담보금 받고 석방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15t 쌍타망어선 2척을 경계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우리 해역으로 진입해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1만1884kg과 7544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한 어선은 한국 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제장을 준수하지 않고 체장 15cm 이하인 조기(평균 11cm) 360kg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총 1억6000만원을 징수하고 어선을 풀어줬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노소영, 1조원 재산 분할 맞소송

노소영(59)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조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 화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희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 지급과 보유한 회사 주식 등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의 이혼소송은 최희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는데,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시 재산은 결혼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분할 대상이며, 한쪽에서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